군것질거리 매출 급증 …비디오게임 등 원인

▲ LA 지역 한 그로서리 마켓에 진열되어 있는 스낵들. 사진=shutterstock

미국인들이 사탕, 과자와 같은 군것질에 열광하면서 제과업체가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16일 '아시아경제' 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시장조사업체 서카나 그룹을 인용해 지난해 미국의 스낵 매출이 181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처럼 미국인들이 군것질에 빠진 배경으로 우선 MZ 세대가 바쁜 일상으로 식사 대신 스낵 소비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980년대~2000년대초에 태어나 현재 10~40대 초인 MZ 세대의 경우 다른 연령층 보다 간식 소비량이 10% 이상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

활동을 위축시킨 코로나19 사태와 비디오게임 증가 등도 간식 소비를 늘린 원인으로 지목된다. 엠버 무라이 허쉬 전략 담당 부사장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밤에 영화를 보거나 그룹 활동을 하면서 팝콘, 캔디와 같은 스낵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고 분석했다.

올해 미국 시장에서 스낵 판매량이 7~9.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체 식음료 시장 판매 전망(5.5%)을 웃도는 수준이다.

WSJ는 "미국 식단의 스낵화로 제과업체 공룡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다." 며 "미국 소비자들이 스낵에 열광하고 다른 식료품 기업들이 스낵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경쟁하면서 제과업체가 호황을 맞고 있다." 고 분석했다.

미성년자 사망률 15년 만에 최고치 급증

미국의 미성년자 사망률이 2021년 기준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버지니아코먼웰스대(VCU) 사회건강센터 소장 스티븐 울프 교수가 지난 3월 미국의학협회저널(JAMA)에 발표한 '미국 사망통계 분석 보고서' 를 인용해 1~19세 미성년자의 전체 사망률은 2019~2020년 10.7%, 2020~2021년 8.3% 증가해 1970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전했다.

▲ 지난 6일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댈러스 교외 앨런 쇼핑몰 앞의 희생자 추모 팻말에 여성과 아이가 글을 적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0년 인구 10만명당 21명이던 미성년자 사망자 수는 2015년 19명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는 29명이나 됐다. 지난 15년간 가장 많은 수치다.

미성년자 사망률이 증가로 돌아선 이유는 총격사건 등에 따른 살해사건과 자살, 약물 과다복용, 교통사고 등 네 가지 원인 탓이라고 울프 교수는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총격사건인 유일한 나라다. 10~19세 청소년의 자살률은 2007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도 사망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한 비율은 높지 않았지만 자살과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경우가 크게 증가했다. 펜타닐과 옥시코돈 같은 치명적인 마약이 미 전역에 널리 퍼진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10대 남성 사망률이 10대 여성 사망률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는 사실도 이번 연구에서 확인됐다.

초중교 급식, 초콜릿 맛 우유 퇴출 위기

미국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초코우유가 퇴출될 처지에 놓였다. 소아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나친 당분 섭취를 줄이기 위해 당국이 준비하고 있는 조치에 따른 것이다.

▲ 한 초등학교 급식으로 지급되는 가향 우유. 사진=AFP/뉴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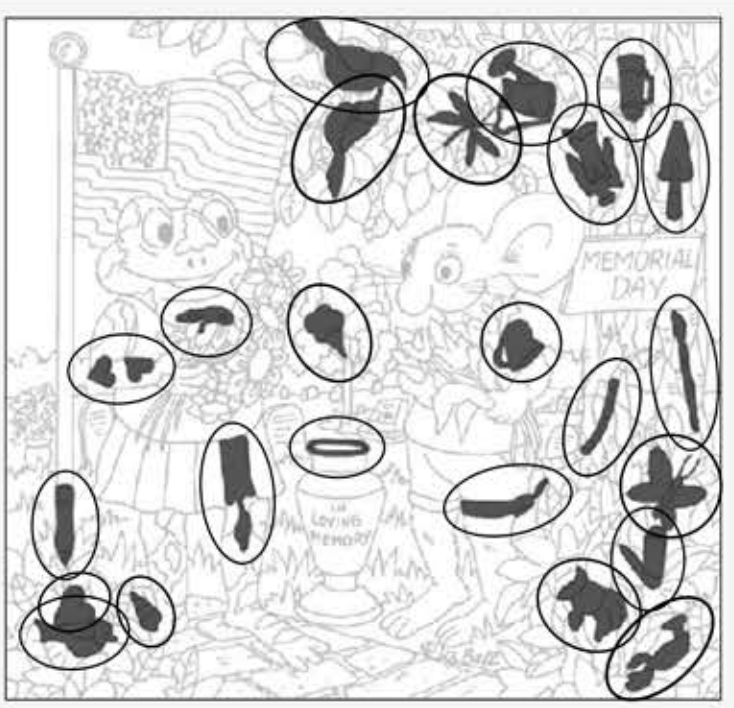
17일 '동아일보' 가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미 농무부(USDA)는 초중등학교 식당에서 초콜릿과 딸기 맛을 포함한 '가향 우유' 금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가향 우유에 많이 들어 있는 첨가당(added sugar)이 어린이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달달한 음료만 좋아하게 하는 잘못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초코우유는 초등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으로도 꼽힌다.

학부모와 학교 당국, 소아영양 전문가 등은 초코우유 금지를 놓고 찬반으로 나뉘어 있다. 초코우유 급식에 반대하는 측은 어린이 먹을거리에 이미 설탕이 지나치게 많이 함유돼 우유에까지 설탕을 넣어 마실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유제품 업계 등은 아이들이 초콜릿이나 딸기 맛이 들어가야 그나마 우유를 마신다며 초코우유 금지에 반대하고 있다.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우유를 마시게 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얘기다.

농무부 식품영양국은 내년 중 가향 우유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리고 새 규정을 2025~2026학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숨은그림찾기 정답



낱말퍼즐 정답

■	1 과	메	2 기	■	■	3 시	■
4 공	유	■	5 고	6 진	감	래	■
■	불	■	■	위	■	7 기	8 선
9 보	급	10 기	지	■	11 잔	■	죽
건	■	후	■	12 팔	당	13 대	교
14 소	15 문	■	16 용	■	■	자	■
■	17 화	중	지	18 병	■	19 대	장
■	재	■	■	20 가	랑	비	■